

가정의 달... 올 복지관 행사는 소박하게

5월 가정의 달. 지금쯤이면 복지관에서는 각종 행사로 떠들썩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올해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복지관이 조용한 모양새다. 제법 큰 규모의 행사를 준비했던 곳은 일정을 미루거나 전면취소했고, 세월호 희생자 추모기금행사로 전환해 진행하는 곳도 있다.

한 복지관 관계자는 "구정에서 행사 자체 요청 공문을 받았다"며 "매년했던 행사를 전면 취소할 수 없어 규모를 축소하고 조용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관마다 떠들썩한 외부행사는 자제하고 조촐하게 내부 행사로 마무리 하고 있는 것이다.

남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어른과 가정의 의미를 되새길 한 세월호 사건. 서로 간 도박임이 더 필요한 시기에, 어린이와 어르신, 가족을 위한 소박한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모아봤다.

된다. SK케미칼에서 후원받은 상품권으로 인근 재래시장을 방문,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생필품 및 식료품을 구입한다. 성남농협사랑 주부봉사단이 어르신과 동행한다. (031)731-5520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원장 손지영)에서는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심을 표현하는 의미에서 5월 8일 세족식을 진행한다. 지난해에 이어 벌써 세 번째를 맞는 이 행사는 복지사, 요양보호사들이 어르신의 발을 씻겨드리는 훈훈한 미담으로 자리잡았다. 올해는 인근 52사단 6019부대 장병 20명과 요양센터 직원 101명이 함께 130명 어르신의 발을 씻겨드리며 섬김의 마음을 전한다. 5월 10일에는 청소년자원봉사학교 학생 20명과 학부모 14명이 요양원을 찾아 손수 만든 음식을 어르신께 대접할 예정이다.



송파노인요양센터에서 지난해 실시된 세족식. 복지사가 어르신의 발을 정성스레 닦고 있다.

어버이날 맞이해 세족(洗足)식 발 씻겨드리며 공경 의미 표현 부처님오신날에는 '행복론' 강의

이다. 매주 요양원으로 봉사를 나오는 청소년들의 학부모가 동참했다. 청소년들은 조촐한 공연을 준비해 어르신들 앞에서 선보인다. (02)409-1616

스님의 행복론 강의듣고 가족캠프 출발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해 특강과 체험교실 등이 마련됐다.

종로노인복지관(관장 정관)은 5월 6일 복지관 이용 어르신 30여명과 함께 사찰문화체험의 일환으로 청주 평화사를 방문, 부처님오신날 기념법회에 참석할 계획이다. (02)742-9500

前 삼전복지관 관장이었던 보스 스님은 **삼전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동옥)에서 부처님오신날 기념 열린 특강 '최상의 행복론'을 준비한다. 복지관 측은 "행복하게 살고 싶은 이들을 위해 삶을 특별하게 해줄 강의를 준비했다"며 "행복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

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선착순 20명을 대상으로 5월 9일 오전10시부터 열린다.

또한 삼전복지관에서는 아동들에게 불교문화유산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내손으로 만져보는 역사 교실'을 열고 석굴암 만들기 시간을 진행한다. 5월 31일 초등학교생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웃가족과 함께 떠나는 1박2일 가족캠프도 마련됐다. 경기도 안성 나리굴문화마을에서 공예체험과 레크리에이션, 오솔길 산책 등을 하며 가족화합의 시간을 다질 예정이다. (02)421-6077

이외에도 **신길종합사회복지관**(관장 공상길)에서는 5월 23일 신길동 주민 누구나 참여하는 '우리가족 사난 DAY'를 진행한다. 먹거리와 공연, 나눔장터가 운영된다. 지난해에는 미술 공연, 곤충전시, 가족사진촬영 등이 진행됐다. (02)831-2755

서로 이해해보자- 가족 교육 진행도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부모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자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한다. 한부모가정 또한 다양한 형태의 가정 중 하나임을 알리는데 초점을 맞춰 평등한 가정문화 확대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을 신청하면 한부모가정센터 소속 전문강사가 방문교육을 실시하며, 유아·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일반시민, 아이돌보미, 교사 등 대상별 맞춤교육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중고생들을 대상으로는 '변화하는 세상, 건강한 가족'을, 일반시민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한가지, 보이지 않는 차별'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매월 둘째 토요일에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양육코칭 '사랑+'을 실시한다. 자녀와 함께하는 미술코칭, 학습전략검사, 나들이 등이 마련된다. (02)861-3020

중립복지관, 지역 주민 봉사단 발족

중립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용갑)은 이웃사랑실천을 위해 봉사단을 발족했다. 수족마사지 봉사단 '리빙핸즈'와 환경지킴이 봉사단인 '초록맘 리더봉사단'이 4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수족마사지 리빙핸즈 봉사단은 2달간 전문적인 수족마사지 교육을 수료하고 지역 내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마사지 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지역 내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초

록맘 리더봉사단'이 'green 마을'도 활동을 시작한다. '우리가 green 마을'은 EM(유용미생물)에 대해 관심있어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EM발효액 및 천연비누 등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천연제품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후에는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지역 내 환경지킴이에 앞장설 수 있는 활동을 하게 된다. 폐식용유를 활용해 EM 재활용 비누를 만들고,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배현진 기자**



수족마사지 리빙핸즈 봉사단원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당신의 마음은 건강하신가요?

원종복지관, 어르신 정신건강검진

부천 원종종합사회복지관(관장 홍갑표)은 4월 23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와 우울증을 진단하는 정신건강검진을 진행했다. 노년기에 직면하는 심리·정서적 위기에 놓인 어르신을 미리 발굴해, 정신건강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치매는 우리나라 어르신 100명 중 약 9명이 앓고 있는 심각한 질환이다. 어르신들의 치매에 대한 불안감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치매환자 관리가 개인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대두 되고 있기에 사회적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정신건강검진은 만 60세 이상 73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부천치매센터·오정보건소가 참여해 복지관 지하 1층 나



어르신들이 정신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눔터에서 진행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신건강검진에 참여했다는 어르신 중 한명은 "멀리 가지 않아도 치매검사를 받을 수 있어서 좋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원종종합사회복지관은 "어르신들이 마음건강을 되찾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배현진 기자**

<오래된 미래>저자, 호지여사 강연 열린다

5월 31일 '지속가능 개발의 대안과 방향'

조계종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원경이) <오래된 미래>의 저자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사진)와 함께하는 강연을 개최한다. 호지여사는 스웨덴 출신의 언어학자·세계적인 여성 생태환경운동가로 개발과 파괴를 일삼는 서구식 산업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리틀 티베트'로 불리는 라다크의 '오래된' 사회를 우리의 '미래'로 제시한 바 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측은 "개발이 약속한 것은 소득증대와 빈곤극복, 교육과 의료 문제의 현대화이지만 서구에서는 아직도 빈곤과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개발의 대안과 방향에 대해 살펴보는 의미에서 호지여사를 초청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강좌는 개발로 인해 라다크에서 빈곤과 불평등, 마을 공동체와 생태계의 파괴가 일

어나는 모습을 지켜본 호지여사가 조화로운 관계의 가치와 지역의 중요성이 바탕이 되는 생태 공동체 중심의 생활방식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강연은 5월 3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1시부터 열린다. 1부에서는 다큐멘터리 '행복의 경제학'이 상영되고 호지여사의 강연은 2부에서 시작된다. 참가 신청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 홈페이지(<http://jabinanum.or.kr>)에서 하면 된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강북복지관, "단단한 노후 인생 시작~"

강북노인종합복지관(관장 소지)에서는 어르신들의 단단한 노후 인생을 위해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채무, 부동산, 상속 관련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한다. 5월 9일과 26일 진행되며 수시로 신청을 받는다. 또한 어르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IT 지원사업 '세상과 사랑을 잇(IT)'은 노리터(老里提)-Smart Dream Start! 스마트한 꿈을 시작하는 강북 노리터 사업을 진

행한다. 총 28명의 어르신들이 두 반으로 나눠 8개월간 컴퓨터, 휴대폰, IPTV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매주 월, 수, 금요일 복지관 내 2층과 지하 노리터에서 진행된다. 교육 후에는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내 외부 봉사활동인 IT 나눔활동을 실시한다. 삼성 SDS,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후원받는다. **배현진 기자**

생전 예수재 기도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생전 예수재는 살아 있을 때 사후(죽은 뒤)를 위하여 공덕을 쌓아서 지옥고를 받지 않고, 극락왕생하도록 법의 공덕을 저축하는 의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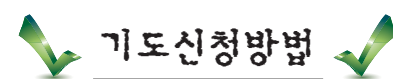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전예수재가 사후의 극락도 보장하지만, 살아있을 때, 전생의 빚을 갚는 의식을 겸한 재료써, 이 재를 지내면 그시점부터, 단계적으로 빚을 갚아 나가게 되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빚을 갚은 만큼,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이 기도로써 업장소멸이 거의다,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생의 빚을, 단계적으로 갚아 나갈 수 있는 생전예수재 기도 방법과 방편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진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성스러운 방편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이제 생전예수재 기도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쉽고, 간편하게,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자들에게 드릴 생전예수재 기도의 중요성 책자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전화 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기도신청방법

생전예수재 기도 책자를 받으셔서 읽어보시고, 본회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기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생전예수재 기도의 성취효과는 매우 크며,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써넣고,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불자들에게서 다른 좋은 기도도 많이 있지만, 이번에 한번 해 보실 만한 기도로써, 생전예수재 기도를 권해드립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괴로우셨다면 이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